

편집인 인사말

정병훈
편집인

진주시는 2019년 10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새로운 회원으로 선정될 때부터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 저널을 발행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. 이 저널은 공예 및 민속 예술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 도시들의 지식, 경험, 그리고 실천을 공유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우리는 관련 학계, 연구기관, 한국-UCCN 자문위원회, UCCN 도시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. 나는 많은 국내 혹은 해외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. 우리는 네트워크에 속한 창의도시들의 포괄 포인트들에게 이 저널에 대해서 알렸고, UCCN 웹사이트에 “논문 공모” 소식을 올렸습니다. 많은 창의도시들이 고맙게도 우리의 제안에 응답해 주었습니다. 7개 도시가 문화유산과 활동에 관한 글을 투고해 주었습니다. 4명의 학자들이 “팬데믹 상황에서의 문화예술 활동: 과제와 해결방안”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. 나는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, 우리가 제기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원고로 투고해 주신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이 저널에는 5개의 학술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. 그 중 일부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매년 진주시에서 개최된 창의도시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입니다. 나는 치앙마이 대학의 사회연구소 소장인 워라론 분야수랏 교수님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. 그 분은 편집위원회에 참여하시고, 학술논문을 투고하셨으며,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고,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 저널이 간행되는 데 기여하셨습니다.

나는 이 저널이 도시 간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, 창의도시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 및 평가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 나는 이 저널이 궁극적으로는 UCCN미션 선언문에 언급된 핵심 목표들을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.

이 저널은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 무형 유산의 창의적 전승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창의산업 진흥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학술논문들을 게재할 것입니다. 또한 공예 및 민속 예술 분야의 회원 도시에서의 현재와 미래의 이슈에 대한 토론, 인터뷰, 북 리뷰, 그리고 새로운 실천과 이벤트에 대한 보고를 실을 것입니다. 우리는 여러 창의도시들이 학술 논문, 짧은 기사, 리뷰, 그리고 공예 및 민속 예술 관련 소식을 투고함으로써 이 저널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.

마지막으로 축하글을 보내주신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담당 부국장님,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또한 권두논문을 써 주신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님과 이 저널에 대한 재정적,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규일 진주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.

진주시 장 축사

조규일
진주시장

〈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〉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또한 UNESCO 창의도시들 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창간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아울러 저널의 국·내외 편집위원님들, 참여하신 모든 창의도시 관계자 분들, 그리고 정병훈 UNESCO 창의도시 추진위원장님의 모든 지원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진주시는 2019년에 UNESCO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. 예로부터 진주는 특히 교육뿐 아니라 문화유산의 국제교류에 뛰어난 창의적 자산을 가진 도시였습니다. 공예 및 민속예술은 항상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며, 진주검무, 진주오광대 등 다양한 민속예술과 소목, 장도, 장석 등의 전통공예, 진주남강유등축제, 개천예술제, 진주논개제 등 전통축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

이처럼 뛰어난 역사를 바탕으로, 우리는 지금 국제적 수준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전통지식의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도시의 창의성과 문화산업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이 창간호가 창의도시들 간 공유된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현방안을 도출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또한 이 창간호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담론과 실천이 더욱 풍부해지길 기원합니다.

다시 한 번 저널 발간을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유네스코 본부 축사

에르네스토 오토네 R.
유네스코 문화담당 부국장

공예와 민속 예술은 늘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. 그것들은 문화와 창의성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,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켜 주고, 우리의 일상적 삶을 풍요롭게 하며,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 줍니다. 공예와 민속예술은 가치있는 노하우, 기법과 생활유산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, 젊은이들과 모든 연령의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손, 그리고 가슴을 모아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.

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46개의 도시들이 힘을 모아서 문화와 창의성을 통해서 도시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견인하도록 합니다. 그 중 49개의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들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와 사회의 활성화에 본질적인 요소인 문화를 유지하고, 전승하고, 발전시키는 일을 고무하고 촉진하는 데 공예와 민속 예술의 독특한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

유네스코는 공예와 민속예술을 기리고, 보호하고, 재창조하는 도시들을 지원하게 될 이 저널을 창간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의 실행에 찬사를 보냅니다. 나는 매년 간행될 이 저널이 -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본질적인 구성요소이자 기여자인 - 공예와 민속예술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 공동체의 노력을 더욱 지원해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

Congratulatory Message

Congratulatory Note

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 발간 축하

김광호

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

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진주의 ‘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’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국제사회는 전세계 빈곤의 종식과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‘지속가능발전목표’의 달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 중 11번 목표인 ‘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’의 달성에 있어서는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.

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안전하고 회복탄력성을 지니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창의성과 문화산업을 도시발전 계획의 중심에 둔 도시들의 모임입니다. 유네스코 창의도시들은 교류를 통해 각 도시의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에 대한 모범사례를 주고 받으며, 지속가능발전 11번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.

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004년 출범 이래, 2020년 현재 전 세계 85개 회원국 246개 도시가 가입한 네트워크로 성장하였습니다. 이 중 49개 도시가 공예와 민속예술 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

2019년 회원도시로 가입한 진주는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학술교류는 물론 여러 도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회원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‘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국제저널’을 창간하였습니다.

‘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국제저널’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지식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.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서로의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이어줄 유용한 통로로 활용될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.

‘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네트워크 매거진’ 발간을 축하하며, 앞으로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를 넘어,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저널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.

Congratulatory Statement